

BOBST Press Confer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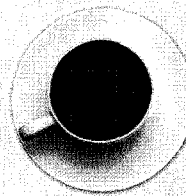
Graphic Arts

인쇄기술신문

일시: 2009년 11월 4일 (수) 오전 11시 장소: 만로랜드코리아



만로랜드와 BOBST 프레스데이 한국시장에 성공적 진입, 마케팅 강화할 것



지난 11월 4일 한국만로랜드(대표 케네스 엠 한센)와 BOBST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한국시장에서의 공동마케팅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프레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프레스행사에는 한국만로랜드의 케네스 엠 한센 회장과 한국시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BOBST의 일본 법인 대표인 닐 존스 대표가 참석, 한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패키징 분야에서 밥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다음은 일문일답)



BOBST Press C



- 1 한국만로랜드 케네스 엠 한센 회장이 밥스트를 소개하고 있다.
- 2 닐 존스 밥스트 일본법인 대표는 한국시장에서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 3 밥스트의 닐 존스 대표와 통역을 담당한 만로랜드의 허준영 부장

BOBST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만로랜드코리아(주)(대표 케네스 엠 한센)와 패키징 장비 생산 업체인 BOBST는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한국시장에 대한 적극 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BOBST는 지난 1890년에 창립되었으며 다이커터, 접착기, 그라비아 인쇄기 등을 전세계에 공급해 왔습니다. 특히 다이커터와 접착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4년전부터 일본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굳히기 위해 일본법인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갖고 있었으며 자주 한국을 왕래하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시장에서 BOBST는 라미네이팅, 바니시 또는 코팅 처리된 카톤 박스의 접착 품질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이러한 새로운 플라즈마 방식의 접착을 시장에 공급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BOBST는 앞으로도 한국시장에서 고객을 위한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 도모를 추구할 것이며 패키징분야에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부터 만로랜드와 함께 한국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 지난 몇 년간 일부 원활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기도 했던 BOBST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시장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장비를 공급하는 한편으로 고객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이 밥스트에서 갖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또한 한국시장에서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BOBST의 패키지 부문을 놓고 볼 때, 한국, 일본,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매출에서의 비중은 35%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발주된 신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높을 수록 좋다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만, 적어도 45~5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BOBST가 제공하는 뛰어난 기술력과 다양한 솔루션의 뒷받침으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목표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